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9.07 [21~24]

(가)

시키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 싶기에 난로에 싱싱한 물푸레  
갈이 지피고 등피(燈皮)\* 호 호 닦아 끼우어 십지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돋다 미리 떼고 걸고 보니 켈린더 이튿날 날짜가 미리 붉다  
이제 차츰 밟고 넘을 다람쥐 등솔기같이 구브레 번어 나갈 연봉  
(連峯) 산맥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이여 초침 소리 유달리  
뚝뚝거리는 낙엽 벗은 산장 밤 ㉠ 창유리까지에 구름이 드뚝니  
후 두 두 두 낙수(落水) 짓는 소리 크기 손바닥만한 어인 나비가  
따악 붙어 들여다본다 가엾어라 열리지 않는 창 주먹 쥐어 징징  
치니 날을 기식(氣息)도 없이 네 벽이 도로혀 날개와 떴다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幻想) 호흡하노라  
서둘러 붙어 있는 이 자재화(自在畵)\* 한 폭은 활 활 불피워  
담기어 있는 이상스런 계절이 몹시 부러웁다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앓을까 무서워라 구름이 다시 유  
리에 바위처럼 부서지며 별도 휩쓸려 내려가 산 아래 어느 마  
을 위에 총총하노 백화(白樺) 숲 희부엌게 어정거리는 절정(絶  
頂)\*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

- 정지용, 「나비」 -

\* 등피 :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 하여 납포등에 씌우는 유리로 만든 물건.

\* 자재화 : 자, 컴퍼스 따위를 쓰지 않고 연필이나 붓만으로 그린 그림.

\* 절정 : 산꼭대기.

(나)

겨울 아침, ㉡ 유리창 가득 반짝이는  
성애를 본다. 유리창에 만발한 하얀 식물,  
꽃과 잎과 줄기를 본다. [A]  
무엇일까,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섬세한 꽃과 잎의 무늬 안에 가두어놓은 힘은.

결빙의 힘 속에  
식물의 본능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땅 속에서 물을 퍼올려  
잎을 피우고 꽃을 터뜨리는 생명의 비밀이  
얼음 속에도 있었던 것일까. [B]  
모든 흐트러짐과 자유로움을  
정교하고 엄격한 겨울로 만드는  
서슬 푸른 법(法)과 도(道)의 세계가  
결빙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일까.

이 화려한 무늬를 들여다보면  
막 열기 시작한 물이  
결빙의 칼날과 환희를 건디다가  
절정의 순간 얼음의 결정체마다 살라놓은  
투명한 불의 흔적이 보인다. [C]

겨울 아침, 하얀 식물 성애를 보며  
문득 지상의 모든 얼음을 떠올린다.  
푸른 얼음 속에 울창하게 퍼져 있는  
또다른 원시림을 본다. [D]  
청정한 법(法)과 도(道)가

열대의 온갖 동식물처럼  
뿌리내리고 자라 넘실거리는,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을 본다. [E]

- 김기택, 「얼음 속의 밀림」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의 제시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로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비」는 일제 강점 말기에 쓰인 작품으로,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시인의 우울한 내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추운 가을날 산장을 찾은 시인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적막한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렇게 조우하게 된 자신의 내면을 비유적 대상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늦가을, 높은 산속에 실재하기 어려운 '나비'는 화자의 상상이 만들어 낸 가상의 존재로서 화자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 준다.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 시대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심정, 억압적 현실로 인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때 나비는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서 기능하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응시하는 성찰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 ① '초침소리 유달리 똑다거'린다고 느낄 만큼 적막감이 감도는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시적 배경이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낙수 짓는' 창밖에 붙어 있는 나비를 '가없'다고 여기는 것은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했던 화자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나비에 투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이나 '자재화 한 쪽'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창밖 나비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상상해 낸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④ 산장 안의 온기를 '이상스런 계절'로 여기며 '부러'워하는 창밖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는 모습은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성찰적 자세에 해당하겠군.
- ⑤ 비를 내리는 구름이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인 별도 '휩쓸려 나려'갔다는 표현은 화자가 처한 암울한 시대적 현실에서 느끼는 우울한 내면세계와 관련이 있겠군.

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로 인식하는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성에'의 모습에서 '하얀 식물'의 모습을 유추해 내고 있다.
- ② [B] : '결빙의 힘'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 속성에 주목하여 '결빙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과 저항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C] : 대상을 근거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물의 결빙이 만들어 낸 무늬에서 '불의 흔적'을 발견해 내고 있다.
- ④ [D] : 하나의 대상에서 찾아낸 속성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함으로써 '성에'에서 '원시림'으로 연결되는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⑤ [E] : 정적 대상을 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에'에서 찾아낸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역동적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안과 밖의 두 공간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자각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투영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보 기>

「나비」는 일제 강점 말기에 쓰인 작품으로,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시인의 우울한 내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추운 가을날 산장을 찾은 시인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적막한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렇게 조우하게 된 자신의 내면을 비유적 대상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늦가을, 높은 산속에 실재하기 어려운 '나비'는 화자의 상상이 만들어 낸 가상의 존재로서 화자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 준다.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 시대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심정, 억압적 현실로 인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때 나비는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서 기능하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응시하는 성찰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 읽기 전 활동

일제 강점 말기에 쓰인 작품인 '나비'는 식민지에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느낀 무력감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가을날 산장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는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나비가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서 기능하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응시하는 성찰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

시키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 싶기에 난로에 싱싱한 물푸레갈이 지피고 등피(燈皮)<sup>\*</sup> 호 호 닦아 끼우어 십지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돋다 미리 떼고 걸고 보니 켈런더 이튿날 날짜가 미리 붉다 이제 차츰 밟고 님을 다람쥐 등솔기같이 구브레 번어 나갈 연봉(連峯) 산맥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이여 초침 소리 유달리 똑닥거리는 낙엽 벗은 산장 밤 창유리까지에 구름이 드뉘니 후두 두 두 낙수(落水) 짓는 소리 크기 손바닥만한 어인 나비가 따악 붙어 들여다본다

\* 등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하여 납포등에 씌우는 유리로 만든 물건.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보기>에서 말했듯 추운 가을 산장에서 혼자 있는 화자가 난로에 나무를 넣어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산장은 매우 조용한 곳에 위치하여 '초침 소리 유달리 똑닥거리'는 고요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의 성찰을 유발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분위기에서 '손바닥만한 어인 나비'가 창문에 붙어 화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없어라 열리지 않는 창 주먹 쥐어 징징 치니 날을 기식(氣息)도 없이 네 벽이 도로혀 날개와 떠다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幻想) 호흡하노라 서툴러 붙어 있는 이 자재화(自在畵)<sup>\*</sup> 한 폭은 활 활 불피워 담기어 있는 이상스런 계절이 몹시 부러웁다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라

\* 자재화: 자, 컴퍼스 따위를 쓰지 않고 연필이나 붓만으로 그린 그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나비를 가엽게 여긴 화자는 열리지 않는 창문을 열고자 주먹으로 창을 두드려 보지만, 나비는 기운도 없이 날개를 떨고 있습니다. 오천 척 위에 떠도는 비맞은 나비는 비맞은 환상을 호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를 맞은 것은 <보기>에서 언급했던 시대에 대한 아픔,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를 맞던 나비에서 시상은 호흡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창문에 붙어 있는 자재화 같은 나비로 이어지는데, 창문에 붙은 나비 또한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난 따뜻한 봄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나비가 어느새 검은 눈을 원숭이처럼 뜨지나 않을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잔나비'가 갑자기 등장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무서워라'를 통해 잡고 넘어갔다면 충분합니다.

구름이 다시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며 별도 휩쓸려 내려가 산 아래 어느 마을 위에 총총하노 백화(白樺) 숲 희뿌연게 어정거리는 절정(絶頂)<sup>\*</sup>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

- 정지용, 「나비」 -

\* 절정: 산꼭대기.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화자는 구름이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면 별도 함께 쓸려 내려간다면 이곳이 어두워지는 대신 '산 아래 어느 마을'은 밝아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습니다. 자작나무 숲에 희뿌연게 어른거리는 산꼭대기는 또렷하지 않고 부유스름합니다. 이러한 밤을 보내는 화자는 <보기>에서 언급했듯 부정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난해하게 느껴졌을 수 있을 시입니다. 하지만 항상 난해한 시여도 <보기>를 기반으로 해석의 방향성을 잡고 시작했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기>에서 말했듯 '나비'를 소재로 삼아 암울한 현실에 대한 생각과 자아 성찰을 하는 화자의 모습에 집중하여 읽어야 하는 시입니다.



(나)

겨울 아침, 유리창 가득 반짝이는  
성예를 본다. 유리창에 반발한 하얀 식물,  
꽃과 잎과 줄기를 본다.  
무엇일까,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섬세한 꽃과 잎의 무늬 안에 가두어놓은 힘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겨울 아침에 유리창 가득 반짝이는 성예를 보며 마치 ‘하  
얀 식물’같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  
다. ‘꽃과 잎과 줄기’를 본 화자는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이렇게 섬세한 꽃, 잎의 무늬 안에 가두어놓은 힘이 무엇  
일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결빙의 힘 속에  
식물의 본능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땅 속에서 물을 퍼올려  
잎을 피우고 꽃을 터뜨리는 생명의 비밀이  
얼음 속에도 있었던 것일까.  
모든 흐트러짐과 자유로움을  
정교하고 엄격한 계율로 만드는  
서슬 푸른 법(法)과 도(道)의 세계가  
결빙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일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가 성예는 어째서 식물과 같은 형태를 갖는지 의문을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식  
물의 본능이 숨어있기 때문인지, 얼음 속에도 생명의 비  
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흐트러짐과 자유로움을  
‘법’과 ‘도’를 통해 정교하고 엄격한 계율로 만드는 과정  
이 결빙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려한 무늬를 들여다보면  
막 열기 시작한 물이  
결빙의 칼날과 환희를 건디다가  
절정의 순간 얼음의 결정체마다 살라놓은  
투명한 불의 흔적이 보인다.

겨울 아침, 하얀 식물 성예를 보며  
문득 지상의 모든 얼음을 떠올린다.  
푸른 얼음 속에 울창하게 퍼져 있는  
또다른 원시림을 본다.  
청정한 법(法)과 도(道)가  
열대의 온갖 동식물처럼  
뿌리내리고 자라 넘실거리는,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을 본다.

- 김기택, 「얼음 속의 밀림」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 화려한 문의를 들여다보면 물이 결빙의 칼날과 환희를  
건디다가 살라놓은 ‘투명한 불’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  
는 화자입니다. 겨울 아침에 성예를 보며 지상의 모든 얼  
음을 떠올린 화자는 얼음 속에 펼쳐진 ‘원시림’을 봅니다.  
화자는 얼음 속의 성예는 열대의 온갖 동식물처럼 청정한  
법과 도가 뿌리내리고 자라 넘실거리는,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성예를 ‘얼음 속의 밀림’이라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입니다. 이야기의 주제의식이 확실하게  
‘성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시를 해석할 수 있었을  
듯 합니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  
게 제시하고 있다.

→ (가)의 경우 ‘후 두 두 두’와 같이 음성 상징어를 사  
용하여 비가 내리는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  
다. (나)의 경우에는 음성 상징어가 없으므로 해당 선  
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나)에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1연  
의 내용이 마지막 연에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가)는 화자의 정서는 연민과 같은 정서가 지속적으  
로 나타나며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공  
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성예 속에서 ‘밀림’  
을 찾고 있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날 뿐, 정서의 변화  
역시 찾을 수 없습니다.

④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의 제시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  
각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의 제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심상이 합쳐지는 경우 공감각적  
심상으로 부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⑤ (가)와 (나) 모두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로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점층법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점층시의 구조가 쌓여 나가며 규모가 커지는 표현법이 점층법인데, (가)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의 경우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시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④

<보 기>

「나비」는 일제 강점 말기에 쓰인 작품으로,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시인의 우울한 내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추운 가을날 산장을 찾은 시인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적막한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렇게 조우하게 된 자신의 내면을 비유적 대상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늦가을, 높은 산속에 실재하기 어려운 '나비'는 화자의 상상이 만들어 낸 가상의 존재로서 화자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 준다.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 시대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심정, 억압적 현실로 인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때 나비는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서 기능하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응시하는 성찰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① '초침소리 유달리 똑달거'린다고 느낄 만큼 적막감이 감도는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시적 배경이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겠군.

→ '초침소리 유달리 똑달거'린다고 느낄 만큼 적막한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시적 배경은 화자에게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보기>에 나온 내용의 반복일 뿐인 선지이므로 빠르게 넘어가주면 됩니다.

② '낙수 짓는' 창밖에 붙어 있는 나비를 '가없'다고 여기는 것은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했던 화자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나비에 투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낙수 짓는' 창밖에 붙어 있는 나비를 '가없'다고 여기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자신의 내면을 비유적 대상들을 통해 형상화한다'는 점을 보아 화자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나비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이나 '자재화 한 폭'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창밖 나비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상상해 낸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이나 '자재화 한 폭'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비'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상상해낸 '환상' 속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산장 안의 온기를 '이상스런 계절'로 여기며 '부러워하는 창밖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는 모습은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성찰적 자세에 해당하겠군.

→ 산장 안의 온기를 '이상스런 계절'로 여긴다는 부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화자는 '아슬한 가을'에 '이상스런 계절'을 꿈꾸며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상스런 계절'이 지금이 아니라 '자재화 한 폭'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밖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는 모습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는 '나비'가 '잔나비'로 변할까 무서워하는 것으로, 잔나비는 부정적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화자의 모습일 뿐,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비를 내리는 구름이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인 별도 '휩쓸려 나려'갔다는 표현은 화자가 처한 암울한 시대적 현실에서 느끼는 우울한 내면세계와 관련이 있겠군.

→ 비를 내리는 구름이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고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존재인 별도 '휩쓸려 나려'갔다는 표현을 통해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암울한 시대적 현실에서 느끼는 우울한 내면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A]: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로 인식하는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성'에의 모습에서 '하얀 식물'의 모습을 유추해 내고 있다.

→ 유리창에 낀 성에를 생물인 '하얀 식물'로 인식하는 참신한 발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에는 생물이 아니고 '하얀 식물'은 생물이므로 이 둘을 연관지어 인식하는 것은 참신한 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② [B]: '결빙의 힘'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 속성에 주목하여 '결빙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과 저항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 '결빙의 힘'에 따른 결빙의 과정에서 '억압과 저항'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빙의 과정이 자칫 딱딱해 보이더라도 시에서 주장하는 결빙의 과정은 생명의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해했다면 헛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억압한다거나, 이를 저항하는 생명의 힘이 있다는 등의 시어가 전혀 없음을 유의하여 너무 과도한 넘겨짚기를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③ [C] : 대상을 근거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물의 결빙이 만들어 낸 무늬에서 '불의 흔적'을 발견해 내고 있다.

→ '화려한 무늬'를 들여다보면 '물'이 '결빙의 칼날과 환희를 견디다가' '살라놓은' '투명한 불의 흔적'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얼음 안에서 드러나는 무늬를 관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D] : 하나의 대상에서 찾아낸 속성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함으로써 '성'에서 '원시림'으로 연결되는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성'에서 찾아낸 '하얀 식물'과도 같은 모양을 '지상의 모든 얼음'에까지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함으로써 '성'에서 '울창하게 퍼져 있는 / 또다른 원시림'으로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⑤ [E] : 정적 대상을 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에서 찾아낸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역동적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정적 대상인 '법과 도'를 '은갓 동식물처럼 / 뿌리내리고 자라 넘실거리는, / 뛰고 날고 헤엄치고 노는'으로 해석하여 '성'에서 찾아낸 역동적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창유리
- ㉡ 유리창

① ㉠은 ㉡과 달리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은 ㉡과 달리 현실의 어두움을 지켜보게 되는 사물로, 화자는 '창유리'를 통해 '나비'를 보면서도 '열리지 않'는 창문에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은 ㉠과 달리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과 ㉡ 모두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 경우 암울한 현실을, ㉡의 경우 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매개체의 역할일 뿐입니다.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자각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 ㉠의 경우에는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할 뿐, 이상향을 자각하게 하는 동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 역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자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투영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 ㉠과 ㉡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투영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 경우 '나비'에게 현실을 투영하는 것이지 창유리에 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⑤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과 ㉡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의 경우에는 '성애'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역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